

글로벌 친환경 인증, 섬유·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4. 10. 2.)



국표원과 섬산연은 섬유·패션 분야 친환경·안전관리 해외인증 동향 설명회 개최하여, 섬유·패션 분야 해외인증 규제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.

-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진종욱, 이하 국표원)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(회장최병오)는 우리 섬유·패션 산업계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 2일(수) 서울 섬유센터에서 「섬유·패션 분야 친환경·안전관리 해외인증 동향 설명회」를 개최하였다.
- 이번 설명회에서는 섬유·패션 분야 해외인증 전문가들이 유럽연합(EU)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친환경 규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미국,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필수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,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전문가와 1:1 맞춤 상담을 병행하였다.
- EU에서는 올해 7월 가전제품에 적용되던 에코디자인 지침을 전품목으로 확대·적용하는 에코디자인 규정이 발효되어 섬유·패션 분야는 2027년부터 첫 번째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라, ▲내구성, 재사용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요건이 강화되고, ▲디지털 제품 여권(DPP)이 도입되며, ▲2026년 7월부터는 미판매된 의류·신발 폐기 금지 등이 예정되어 있어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중점 안내하였다.
- 진종욱 원장은 “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는 섬유·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자 재도약의 기회이다”라면서 “이번 설명회가 섬유·패션 수출기업이 인증규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, 앞으로도 국표원은 에코디자인규정 세부 입법 등 해외 인증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산업계에 해외인증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